영·한 시상 체계에 관한 유형적 비교 연구*

조경숙
(호남대학교)

Cho, Kyungsook. 2003. The Typological Study on Tense/Aspect Systems of English and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4), 185-210. This paper aims to study 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ense/aspect systems of English and Korean, focusing on correspondence between tense/aspect formatives and their meanings. Even though the tense/aspect systems of two languages show some similarities in their basic meanings of the tense/aspect formatives, many differences can be found in expressing their specific or contextual meanings. In English, the meanings of the tense/aspect formatives have quite systematic correspondence among them, because temporal meaning is expressed by means of strict formal, grammatical opposition of verbs. On the other hand, Korean language depends on adverbial expressions or contexts for its temporal meaning, as well as on the formal, grammatical opposition of verbs. That is, the various specific, contextual meanings of the tense/aspect formatives in Korean are mostly caused by its formative-neutralization tendency. Therefore, the differences in tense/aspect systems of English and Korean seem to be explained as typ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he languages in which tense/aspectual meanings mainly depend on grammatical devices, and the languages in which tense/aspectual meanings depend on lexical devices as well as grammatical devices.

주제어(Key words): basic, specific, contextual meaning, grammatical opposition, formative-neutralization tendency

1. 서론

대부분의 인간 언어는 명제(proposition)의 시간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시제(tense)와 상(aspect)이다. 시제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떤 상태나 사건, 즉 사태(situation)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며, 상이란 어떤 사태가, 그 정해진

* 이 논문은 2000년도 호남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

시간적 위치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언어적 장치이다(Comrie, 1976, p. 12).

그런데 언어의 시제나 상 개념은 보통 용언의 굴절형이나 시상 형태소와 같은 문법적 방법을 통하여 나타내지만, 시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보조 용언 또는 부사적 표현의 삽입과 같은 어휘적 방법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 범주로서의 '시제'나 '상'은 '의미적인 시간'이나 '의미적 상'과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즉 시제는 어떤 사태가 일정한 시점보다 이전인지, 또는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등의 시간적인 앞뒤 관계를 문법 형태의 대립 관계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며, 상은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계속되는지, 완료되었는지, 반복되는지, 간헐적인지 등을 형태의 대립 관계로 나타내는 문법적 장치인 것이다.

본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시상 체계를 각 시상 형태들이 표현하고 있는 시제적/상적 의미와, 각 시상 형태들이 다른 시상 형태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의미적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이 두 언어의 시상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 시상 형태들이 나타내는 의미는 시상 형태가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기본적 의미와, 결합하는 용언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세부적 의미, 그리고 특별한 문맥이나 환경에서만 허용되는 문맥적 의미로 나누어 비교될 것이다.

2. 시상 형태와 시상 체계

인구어의 게르만 어파, 로만스 어파에 속하는 언어들은 시상 의미가 주로 동사의 굴절 형태를 통하여 실현된다. 이 동사의 굴절 형태는 주어-동사간의 일치(agreement) 제약에 따라 선택되므로, 시상 형태는 동사의 통사적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 인구어에 속하는 영어의 시상 체계도 이러한 굴절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영어의 시제 체계는 동사의 굴절 어미 "∅(-s 포함)"과 "-ed"로 구분되는 비과거/과거 2분 체계이다. 영어에 있어서 미래 시제는 문법적 시제로 인정되지 않는데, 미래 시간 개념이 동사의 굴절형이 아닌 "will, shall" 등의 조동사에 의하여 표현되기 때문이다.[1] 또한 영어의 상 형태는 '조동사 + 동사 굴절형'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동사의 굴절형만으로 상 개념

1) 또한 이 조동사들은 '미래' 외에 '추정'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시제 형태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 표현하는 슬라브어나 그리스어, 스페인어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굴절어 시상 체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어에 있어서 문법적인 상은 “have + p.p.”로 표시되는 완결상(perfective)과 “be + -ing”의 형태로 표시되는 진행상(progressive)의 두 상이 인정된다.

한편 한국어의 시상 체계는 시상표지(tense/aspect marker) 또는 시상형태소(tense/aspect morpheme)라고 불리는, 선어말 어미에 속하는 문법 형태소에 의해 실현된다. 선어말 어미란 한국어에서 어간의 뒤와 어말 어미(종결 어미)의 앞에 나타나서 문장의 시제, 상, 서법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 형태소를 가리키는 범주이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의 굴절 어미가 아니므로, 한국어 시상 표지는 영어와 같은 주어-동사간의 일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물론 한국어에 있어서 시상 의미는 이러한 시상 표지(문법적 형태) 외에, 보조 용언으로 분류되는 시상 보조 용언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상 보조 용언은 그 어휘적 의미에 의해 시상 의미가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법적인 시상 형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2].

그러면 한국어의 시상 체계와 시상 형태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한국어의 시상 체계를 과거/비과거의 2분 체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현재/과거/미래의 3분 체계로 볼 것인가[3], 또 과거 시제와 완결상 범주를 구분할 것인가, 나아가 각 시상 표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본 논문은 한국어의 시제 체계를 비과거/과거의 2분 체계로 보고, 과거 시제와 완결상을 각각 독립된 시상 범주로 보는 입장을 따른다. 또한 시상 형태는 아래 (1)과 같이, ∅을 비과거 시제 표지로[4] 보며, “-었”(변이형태

---

2) 상 의미를 표현하는 보조 용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완료: -어 버리다, -아 내다, -아 나다
지속, 진행: -아 오다, -아 가다
기동: -어 지다
결과: -어/고 있다

3) 이는 선어말어미 “-겠”을 미래 시제 표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추정 의미를 표현하는 서법 표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한국어의 시제를 과거, 현재의 2분 체계로 보는 주장은 이익섭/임홍빈(1983)이나 서정수(1996)에 의해서 주장되었고, 과거, 현재, 미래의 3분 체계로 보는 주장은 고영근(1986)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한편 홍종선(1989)는 “겠”을 미래를 나타내는 “겠1”과 추정 따위의 서법 기능을 보이는 “겠2”로 구분함으로써 미래 시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한국어 비과거 시제 형태에 관한 논란은 비과거 시제 표지를 ∅로 보는 견해와 “ㄴ/는”로 보는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비과거 시제 표지를 ∅로 보는 견해는 서정수(1976), 김성화(1990)등에서 주장되었고, “ㄴ/는”로 보는 견해는 남기심/고영근(1991)과 학교 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서정수는 “ㄴ다/는다”를 평서술문의 비과거에 사용되는, 서법을 표현하

“-었, -았, 从, -였” 포함)은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시제 기능이 약화 또는 중화되면, 상이 명시되는 ‘디폴트 범주(default choice category)’로 보는 견해를 받아들여[5] 영, 한 시상 체계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한국어 시상 형태

시상 종류	비과거 시제	과거 시제	완결상	진행상
시상 표지	∅	“-었”	“-었”	“-고 있”

두 언어간의 시상 체계에 대한 비교는, 각 시상 체계의 유형적 특징을 보여줌으로써, 개별 언어의 시상 체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3. 영, 한 시제 체계 비교

3.1 비과거 시제 형태의 시제적 의미

3.1.1 영, 한 비과거 시제 형태의 기본적 의미

영어와 한국어의 비과거 시제 형태는 [+Stative] 용언과 결합하여 ‘현재 상태’를, [-Stative] 용언과 결합하여 ‘현재 사건’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과거 시제 형태가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경우, 영어 문

는 종결 어미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김성화는 “ㄴ/는”을 동작 운용소로 보았다. 또한 Lee, E.(2001)는 “ㄴ다/는다”를 종결어미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고, 명시적 시제 표지를 갖지 못한 서술절의 시제는 LF 단계에서 자동적으로(by default) 무표지(null or covert) 시제, 즉 Pres null 해석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5) 시상 표지 “-었”에 관한 주장은 크게 다음 세 부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었”은 과거 시제라기보다는 완결상을 나타내는 상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박창해(1964)와 허웅(1969)에서 싹터서 남기심(1972, 1978)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둘째 “-았, -었” 따위는 시제를 나타내며, 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김차균(1985)등의 견해로서, 이들은 남기심의 시제 부재론을 비판한 바가 있다. 셋째는 한국어도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제와 상의 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었”이 시제 표지도 될 수 있고 상 표지도 될 수 있는 “혼합 자질”의 융합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주장은 H. Sohn(1975)나 서정수(1976), 김석득(1981, 1992)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도 “-었”의 일차적인 의미는 과거 시제의 표지라 하고 완료상을 표시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부차적 기능으로 보았다.

장 (2)은 한국어 문장 (3)으로 시상 형태의 변화 없이 그대로 대응된다.

(2) a. He *is* young.
b. I *love* him.
(3) a. 그는 *젊다.*
b. 나는 그를 *사랑한다.*

다음으로 비과거 시제 형태가 '현재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영, 한 비과거 시제 형태는 일정한 대응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눈앞에서 바로 전개되는 동작이나 변화를 나타내는 목전의 사건(presently observing event)의 문장 (4)나, 일의 절차처럼 서로 관련된 행동이나 변화가 차례로 잇따라 일어남을 표현하는 일련의 사건(sequential event)을 표현하는 문장 (5), 수행동사를 사용하여 어떤 행위를 수행함을 표현하는 수행적 사건(performative event)의 문장 (6)에서 영, 한 비과거 시제 형태는 동일한 세부적 의미를 표현하는 공통점을 보여준다(Parlmer, 1974; 강수언, 1999 참조).

(4) a. Black *passes* the ball to Fernandez... Fernandez *shoots!*
b. 저기 그 사람이 드디어 *나타난다.*
(5) a. I *pick* up the fruit with a skewer, *dip* it into the batter, and *lower* it into the hot fat.
b. 환자가 진찰권을 *산다.* 진찰실로 *들어간다.*
(6) a. I *advise* you to withdraw.
b. 나는 당신의 제의를 *수락합니다*(Quirk, 1985, p. 180; 서정수, 1996, pp. 266-267).

3.1.2 영, 한 비과거 시제형의 문맥적 의미

영어와 한국어의 비과거 시제형은 문맥에 따라 과거 사태나 미래 사건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비과거 시제형이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과거 사실로 알려진 일이거나 과거사임이 전제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예사이다.

예컨대 역사적 현재(historic present)의 영어 문장 (7a)이나, 소설의 해설(fictional narrative)이나 연극 대본의 지문에 사용되는 극적 현재(dramatic present)의 문장 (7b)도 동사의 비과거 시제형이 과거의 사건을 묘사하는

문맥 의존적 용법에 의한 것이다.

(7) a. I'*m* in this bank, y'know? An' this mafia-type *walks* in and *hauls* out this sawed-off shotgun and *yells* that everybody should lie down(Hofmann, 1993, p. 125).
b. The crowd *swarms* around the gateway, and *seethes* with delighted anticipation: excitement *grows*, as suddenly their hero *makes* his entrance...(Quirk, 1985, p. 183)

한국어의 비과거 시제 형태도 (8)에서 보듯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할 수 있다(서정수, 1996, p. 269).

(8) a. 그이는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른다.* 방안에서 문을 열고 누군가 *나온다.*
b. 세종 임금은 집현전으로 *납신다.*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다[6].

그런데 위의 한국어 문장은 영어 문장 (7)과는 달리, 비과거 시제 형태가 과거 시제 형태인 "었"과 번갈아 나타나는 구성을 하고 있다. 즉 한국어는 단일한 사태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단일한 시제 표지를 써야한다는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비과거 시제 형태는 영어보다 더 자유롭게 과거 서술에 사용되며, 그 문맥적 의미도 영어에 비해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 한의 비과거 시제 형태는 '미래'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 유사점을 보인다. 예컨대 다음 (9)에서 보듯이 영어 동사의 비과거 시제형은 정해진 일정이나 확정된 계획 등의 미래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9) The plane *leaves* for New York at ten o'clock tonight.

한국어의 비과거 시제 형태도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와 함께 어울려서 아래 (10)과 같이 미래의 사건(future event)을 나타낼 수 있다.

(10) 나는 내일 서울 *간다.*

6) 문용(1999, pp. 82-83)은 문장 (8b)와 같은 현재형의 용법을 영어의 역사적 현재와 같은 경우로 보았다.

그런데 영어에 있어서 비과거 시제형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start”, “arrive”, “begin”, “finish”, “open”, “close”, “be” 등의 동사가 사용된 문장에 한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들의 비과거 시제형도, 먼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동반되거나 계획될 수 없는 사건을 표현할 때에는 ‘미래’ 의미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어 비과거 시제형은 ‘미래 상태’의 경우만 제외하면[7], 미래 사건의 표현에 자유롭게 사용된다. 예컨대 아래의 두 문장은 영, 한 비과거 시제 형태의 미래 표현에 있어서, 그 의미 영역의 차이를 보여준다.

(11) a. !She *comes* back ten years from now.
b. 그녀는 십 년 뒤에 *돌아온다*.

그러므로 한국어 비과거 시제 형태가 ‘과거 사태’나 ‘미래 사건’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용이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를 단순히 비과거 시제 형태의 문맥적 의미로 보기보다는 형태적 중화 현상이라는 한국어의 시상 체계의 한 특징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즉 한국어는 명제가 표현하는 사건이 과거나 미래임을 명시하는 부사적 표현이나 문맥이 있으면, 명제의 시간적 의미를 굳이 용언의 문법적 표지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이때 용언의 시상 형태는 기본적인 시상 형태인 비과거 시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2 비과거 시제 형태의 상적 의미

언어의 상 개념은 보통 완결상과 비완결상(imperfective)으로 구분되며, 비완결상에는 진행상, 반복상, 습관상, 지속상 등과 같은 의미적 상의 하위 범주들이 포함된다. 영어와 한국어의 경우 반복상이나 습관상 등은 다른 시상 형태와 대립적인 상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문법적 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기존의 문법적 시상 형태를 빌어서 표현된다.

예컨대 영어와 한국어에 있어서 비과거 시제 형태는 시제 표현이라는 본연의 의미 기능 외에, ‘반복’, ‘습관’, ‘초시간적 의미’ 등의 상적 의미도 표현한다. 즉 영, 한 [-Stative] 동사의 비과거 시제형은 빈도 부사와 함께 사용

7) 상태를 나타내는 [+Stative] 용언의 비과거 시제 형태는 ‘미래’를 표현하지 못한다.
(i) ?날씨가 내일 *흐리다*.
(ii) ?철수는 내일 영희를 *사랑한다*.

되어 문장 (12)에서처럼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문장 (13)처럼 일상적인 행위나 행위자의 속성과 같은 '습관'을 표현한다. 또한 문장 (14)의 '일반적인 사실'이나 문장 (15)의 '초시간적인 진리'를 표현하기도 한다.

(12) a. We often *go* to Hawaii in the summer vacation.
b. 우리는 여름 방학마다 제주도에 *간다.*
(13) a. He *works* at the department store these days.
b. 그는 요즈음 백화점에서 *일한다.*
(14) a. It snows a lot in Russia.
b. 울릉도에는 눈이 많이 *온다.*
(15) a.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b.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위에서 비과거 시제 형태가 표현하는 '반복', '습관', '일반적 사실', '초시간적 진리' 등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미완결상의 의미적 하위 범주이다. 즉 비과거 시제형이 시간적 한정성이 있는 부사어와 함께 나타나면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며, 시간적 한정성이 없는 부사어와 함께 나타나서 반복의 횟수가 확대되면 '동작주의 속성' 즉 '습관'을 나타낸다(Comrie, 1976, p. 29). 또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나 변화는 '일반적 사실'로 받아들여지며, 총칭적 주어와 함께 쓰이는 비과거 시제형은 '일반적 사실'이 확대된 이른바 '초시간적 진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Quirk, 1985, p. 175).

영어와 한국어 비과거 시제 형태는 위와 같은 공통적 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편, 진행상 표현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준다. 예컨대 아래 (16a)의 한국어의 비과거 시제 형태는 진행상 형태 "-고 있"을 포함한 문장 (16b)과 같은 의미, 즉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다.

(16) a.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른다.*
b.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해 영어는 (17)에서 보듯이 비과거 시제형의 진행상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다.

(17) * I sing a song now.

물론 한국어에 있어서 비과거 시제형이 현재 진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전형적인 진행상 표지 "-고 있"의 구문적 제약과 동일하다. 즉 비과거 시제 형태가 [+Stative] 용언이나 [-Stative, -Durative] 동사와 어울릴 경우에는 진행상 해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진행상은 사건의 시작 시점(beginning time)과 종료 시점(finishing time)이 있는 용언에만 형성될 수 있는 상인데, 상태성 용언은 계속되는 상태를 표현하며, [-Stative, -Durative] 동사는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표현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파악할 수가 없음에 기인한다. 예컨대 (18a)의 [+Stative] 용언이나 (18b)의 [-Stative, -Durative] 동사의 경우, 비과거 시제형의 진행상 해석은 불가능하다.

(18) a. 그는 지금 *젊다.* (상태)
b. 그는 아침에 가로등을 *끈다.* (반복)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어 비과거 시제 형태의 진행상 표현 기능은, 비과거 시제 형태의 또 다른 문맥적 의미가 아니라 시상 형태의 중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즉 한국어는 명제가 표현하는 사건이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부사적 표현이 있으면, 진행상 표지 "-고 있"이 비과거 시제 형태 ∅으로 중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시상 표지에 있어서 형태적 중화 현상은 다음 (19)으로 정리된다.

(19) a. 과거 시제 표지 "-었" --> 비과거 시제 표지 ∅
b. 미래 표현 "-겠" --> 비과거 시제 표지 ∅
c. 현재 진행상 표지 "-고 있" --> 비과거 시제 표지 ∅

즉 한국어 비과거 시제 형태는 (20a)의 '습관', (20b)의 '반복', (20c)의 '진행'과 같은 다양한 상 의미와, (20d)의 '과거', (20e)의 '미래'와 같은 시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각 문장의 해석은 포함된 부사적 표현이나 문맥에 의존하여 결정된다.

(20) a. 그는 노래를 *부른다*('그의 직업은 가수이다'의 의미).
b. 그는 *자주* 노래를 *부른다.*
c. 그는 *지금* 노래를 *부른다.*

d. 그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가 노래를 *부른다.*
e. 그는 *내일* 8시에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상을 종합하면 한, 영 비과거 시제 형태는 시제와 상 의미 표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형적 특질을 보여준다. 첫째 영어는 시제 형태와 부사적 표현간에, 또는 앞 뒤 절의 시제 형태간에 엄격한 일치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비과거 시제형이 '과거 사태'나 '미래 사건'을 표현하는 경우도 문맥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둘째 한국어의 시상 체계는 의미적 기능이 문법적 기능보다 우세하다. 즉 시간 부사의 시상 의미는, 용언의 시제 형태와 같은 문법적 형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문장의 시상 의미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상 형태소간의 중화 현상을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시간 부사가 없을 때에는 문맥적 환경도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3.3 과거 시제 형태와 그 의미

영어와 한국어의 과거 시제 형태는, 비과거 시제 형태와 대응하며 다음과 같은 시제적, 상적 의미를 표현한다. 먼저 과거 시제 형태의 시제적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아래 (21)와 같이 [+Stative] 용언과 결합하여 [과거 상태]를 표현하거나, (22)와 같이 [-Stative] 용언과 결합하여 [과거 사건]을 표현한다.

(21) a. He *was* a soldier.
b. 그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22) a. He *studied* English yesterday.
b. 그는 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였다.*[8)]

또한 영, 한 과거 시제 형태는 (23)과 같이, 과거 시점에서 '반복'된 사건이나 '습관' 등의 상적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과거 시제 형태가 이러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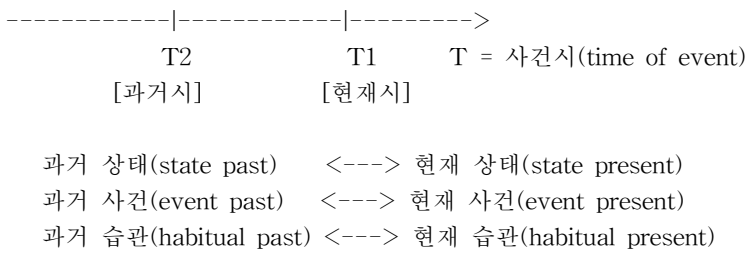
8) "-었"을 디폴트적 과거 시제 표지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었"은 문장 (i)에서 보듯이 과거시를 나타내는 부사 없이도 과거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둘째 "-었"이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와 함께 나타나면 (ii)과 같이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i)그는 열심히 *공부하였다.*
(ii) *그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였다.*

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과거 시제 형태와 마찬가지로 “every morning”, “all through the winter", “자주” 등과 같은 빈도 부사나 지속 부사들이 동반하게 된다.

(23) a. We *got up* at 7 a.m. *every morning all through the winter.*
b. 그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

그러므로 영, 한 과거 시제 형태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비과거 시제형의 시제적, 상적 의미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Quirk, 1985, p. 186 참조). 즉 과거 시제 형태는 비과거 시제 형태가 나타내는 ‘상태’, ‘사건’, ‘습관’ 등이 현재시 이전의 어떤 시점, 즉 과거 시점에 위치함을 나타낸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24)



나아가 영, 한 과거 시제 형태의 의미 차이도 영, 한 비과거 시제 형태가 보여주는 의미 차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된다. 즉 한국어의 과거 시제형 “-었”은 적절한 부사 표현이 동반되면 ‘과거 진행’을 표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문장 (25a)는 전형적인 과거 진행상 형태 “-고 있었”을 포함한 문장 (25b)과 동일하게 ‘과거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한다.

(25) a. 철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를 *하였다.*
b. 철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과거 시제형 “-었”이 과거 진행상을 표현하는 이러한 현상은 앞의 (16)에서 본, 비과거 시제 표지가 현재 진행상을 표현하는 현상과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영, 한 과거 시제 형태에서 발견되는 의미 기능상의 차이는 시상 의미의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시상 표지의 형태적 중화 현상과, 시상 의미 해석을 부사적 표현에도 의존하는 한국어 시상 체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시상 표지의 형태적 중화 현상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쓰여 질 수 있겠다.

(26) 한국어의 시상 형태의 중화 현상
  a. 시제 형태의 중화 방향: 비 기본 시제 형태 --> 기본 시제 형태
    예) 과거 시제 표지 "-었" --> 비과거 시제 표지 ∅
      미래 표현 "-겠" --> 비과거 시제 표지 ∅
  b. 상 형태의 중화 방향: 진행상 형태 --> 단순 시제 형태
    예) 현재 진행상 표지 "-고 있" --> 비과거 시제 표지 ∅
      과거 진행상 표지 "-고 있었"--> 과거 시제 형태 "-었"

4. 영, 한 상 체계 비교

영어와 한국어에서 인정되는 문법적 상은 완결상과 진행상의 두 가지이다. 완결상은 어떤 사태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상 범주이며, 진행상은 사태가 완결되지 않고 그 시점에서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미완결상의 일종이다. 미완결상의 하위 범주인 '반복', '습관' 등은 영, 한 경우 모두 독자적인 상 형태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법적인 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의미적 상의 하위 범주로 취급된다.

4.1 완결상 형태와 그 의미
4.1.1 과거 시제 형태와의 관계에서 본 완결상

과거 시제는 사태의 시간적 의미를 그 시간적 위치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는 시제 범주인데 비해, 완결상은 사태의 의미를 사태가 지속되지 않고 완결됨에 초점을 두어 표현하는 상 범주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완결상 체계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차이는 현재 완결상과 과거 시제간의 형태적 대립에 관한 것이다. 영어는 현재 완료형 "have + p.p."과 과거 시제형 "-ed"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시상 형태간의 분명한 형태적 대립을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현재 완결상을 과거 시제 표지와 동일한 "-었"으로 표시한다. 예컨대 문장 (27a)에서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며, 문장 (27b)의

"-었"은 현재 완결상을 표현하고 있다.

(27) a. 그가 *어제* 도착*했다*.
b. 그가 *방금* 도착*했다*.

이와 같은 한국어 "-었"의 이중성은, 언어의 시상 형태가 완료형으로부터 과거 시제형으로 발전해간다는 언어 보편적 변화 과정으로[9] 설명될 수 있다. 즉 한국어의 "-었"은 통시적(diachronic) 관점에서 보면, 통사적 구성을 지닌 완료형 {-어 잇-}이 과거 시제 형태소 {-었-}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시상 형태이며,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완결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와 함께 나타나면 시제 기능이 약화 또는 중화되면서 상 의미가 명시되는 디폴트 범주로 취급된다(서정수, 1976, pp. 117-118; 1992, p. 128; 1996, p. 281).

4.1.2 영어 현재 완료형의 의미

영어의 현재 완료형은 현재시 지향성(present time orientation)을 지니는 상 형태로서, 특정한 과거시의 상태, 사건, 습관 등을 표현하는 단순 과거 시제형과 구별되는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Stative] 용언의 현재 완료형은 문장 (28a)처럼 '현재시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현재시 이전에 끝나버린 '과거 상태'를 표현하는 단순 과거 시제 문장 (28b)과의 의미적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but now it's been sold"와 같은 표현의 연결이 허용되는가 여부로도 확인할 수 있다.

(28) a.*That house *has been* empty for ages -but now it's been sold.
b. That house *was* empty for ages -but now it's been sold.

현재 완료형의 현재시 지향성은 [-Stative] 용언이 사건이나 습관을 표현할 때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문장 (29)은 과거시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시에

9) 과거 혹은 완료상 표지의 문법화에 있어서 보편적 언어변화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특히 독일어의 경우 완료형과 과거 시제형은 완전 교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이효상, 1995, pp. 207-250; Comrie, 1976, p. 107; Byvee & Dahl, 1989, pp. 57-58, p. 74 참조).
과거 혹은 완료상 표지의 문법화에 있어서 보편적 언어변화 과정:
결과상태 지속(resultatives) > 완료형(Perfect) > 완결상(Perfective) 혹은 과거시제

이르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발생 시점이 불특정한(indefinite) 과거시의 사건이나 습관'을 표현하는데 비해, 단순 과거형 문장 (30)은 '특정한(definite) 과거시의 사건이나 습관'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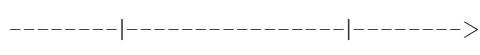
(29) a. *Have* you *seen* the movie?
b. The magazine *has been* published every month (since 1950).
(30) a. *Did* you *see* the movie?
b. The magazine *was* published every month (from 1950 to 1988).

즉 영어의 현재 완료형은 과거 사태를 표현하되, 반드시 '현재시와 연관된 과거'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과거 시제형 "-ed"의 의미와는 구별되며, 아래 (31)에서 보듯이 과거의 확실한 시점을 나타내는 시간 표현과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의미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31) a. *They *have moved* into a new apartment *yesterday.*
b. They *moved* into a new apartment *yesterday*.

따라서 영어의 현재 완료형 "have + -ed"은 아래 (32)처럼 단순 과거 시제형과 의미적 대응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Quirk, 1985, p. 192).

(32)



과거 사건 <---> 현재시에 이르는 동안의 불확정 사건
과거 상태 <---> 현재시에 이르는 상태
과거 습관 <---> 현재시에 이르는 동안의 반복적 사건 또는 습관

4.1.3 한국어 완결상 표현과 영어 완료형의 의미 비교

한국어의 "-었"이 표현하는 현재 완결상 기능 중 많은 경우는 '완결 상태/결과 상태(resultative)'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완결 상태'란 흔히 과거에

이루어진 어떤 사태의 결과가 현재에 남아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아래 "-었"을 포함한 문장 (33)은 완결 상태 보조 용언 "-어 있"이나 "-고 있"을 포함한 문장 (34)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33) a. 돈이 많이 남*았*다.
b. 그녀는 오늘 예쁜 옷을 입*었*다.
(34) a. 돈이 많이 남*아 있*다.
b. 그녀는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있*다.

다음으로 "-었"은 (35a)과 같이 종결의 의미를 가진 부사어와 함께 나타나서 '동작의 종결 또는 완성(egressive/terminative)'등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35b)에서처럼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동반한 [+Stative] 동사와 어울려서 상태의 지속 즉,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비롯되어 현재 시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도 한다.[10] 또한 (35c)에서처럼 '현재시까지 계속된 습관'을 표현하기도 한다.

(35) a. 그는 *벌써* 그 책을 읽*었*다.
b. 그이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느님을 믿*었*다.
c. 그는 소년 *적부터* 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한국어 "-었"의 현재 완결상 의미는 영어 현재 완료형의 세부적 의미와 대응시켜 볼 수 있다. 예컨대 영어에 있어서 수행동사(accomplishment verb)[11]의 현재 완료형 문장 (36a)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상태의 변화(change of state)가 있었고 그 변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즉 '완결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문장 (36b)은 최근에 발생하여 '종결된 사태'를, 문장 (36c)은 '현재시까지 지속된 상태'를, 문장 (36d)은 '현재시까지 지속된 습관'을 표현한다. 따라서 이때의 영어 현재 완료형의 각 의미는 문장 (33)과 (35)에 나타난 한국어 현재 완결상 표지의 의미와 서로 통함을 알 수 있다.

---

10) 이때의 "-었" 의미는 지속 보조 용언 "-어 오"나 "-고 있"의 의미와 같다. 즉 다음의 세 문장은 그 형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
(i) 나는 오랫동안 네 누이를 알*았*다. (어간 +완결상 표지)
(ii) 나는 오랫동안 네 누이를 알*아 왔*다. (어간 + 지속 보조 어간 + 완결상 표지)
(iii) 나는 오랫동안 네 누이를 알고 *있*다. (어간 + "-고 있")

11) 수행 동사란 동태 동사(dynamic verb) 중에서 [+Telic]의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가리킨다(의미적 특성에 따른 동사 분류는 Vendler(1967) 참조).

(36) a. The apples *have* all *been* eaten.
b. He *has* already *read* the book.
c. He *has believed* in God since he was a boy.
d. He *has sung* in his choir ever since he was a boy.

즉 한국어의 완결상 표지 "-었"의 세부 의미인 '완결 상태', '종결', '상태 지속', '지속된 습관'등은 영어 완료형의 세부적 의미와 대부분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완결상 체계는 영어와 구별되는 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었"의 세부적 시상 의미가, 동반하는 부사적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상보적 의미 해석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래 문장 (37a)의 "-었"은 '완결 상태'를 표현하나, 문장 (37b)에서는 '종결'을, 문장 (37c)에서는 '지속된 습관'을 표현하며, 이러한 의미 해석은 동반하는 부사어의 시상 의미에 좌우된다. 더구나 "-었"은 완결상 형태뿐만 아니라 과거 시제 형태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문장 (37d)에서는 과거 시제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

(37) a. 그녀는 오늘 예쁜 옷을 입*었*다.
b. 그녀는 *방금* 옷을 입*었*다.
c. 그녀는 예전*부터* 바지를 입*었*다.
d. 그녀는 *어제* 교복을 입*었*다.

한편 과거 완료의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향시보다 앞섬(anterior to the orientation time in the past)'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영, 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영어 문장 (38a)의 과거 완료형 "had + p.p."는 한국어 문장 (38b)에서 과거 완결상 표지 "-었었"으로 실현된다.

(38) a. I *had* already *met* your sister before you arrived.
b. 나는 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네 누나를 만*났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과거 완결상 표지 "-었었"은 아래 (39)와 같이 현재 완결상 표지 "-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앞의 (26)에서 본 시제 형태의 중화 방향과 일치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39) 나는 네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네 누나를 만났다.

즉 위와 같은 과거 완결상 표지의 중화 현상을 포함한 한국어 시상 표지의 중화 현상은 다음 (40)과 같이 정리된다.

(40) 한국어의 시상 형태의 중화 현상[12)]

a. 시제 형태의 중화 방향: 비 기본 시제 형태 --> 기본 시제 형태
예) 과거 시제 표지 "-었" --> 비과거 시제 표지 ∅
미래 표현 "-겠" --> 비과거 시제 표지 ∅
과거 완결상 표지 "-었었" --> 현재 완결상 표지 "-었"

b. 상 형태의 중화 방향: 진행상 형태 --> 단순 시제 형태
예) 현재 진행상 표지 "-고 있" --> 비과거 시제 표지 ∅
과거 진행상 표지 "-고 있었"--> 과거 시제 형태 "-었"

이상을 종합하면, 영어와 한국어의 완결상은 시상 체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영어의 완결상 체계는 현재 완료형과 과거 시제형, 현재 완료형과 과거 완료형 간의 형태적 대립을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의미적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완료형은 '지향시보다 앞섬'이라는 의미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단순 시제형과 구별되고, 완료형은 다시 현재, 과거의 시제적 구분을 갖게 되는 체계이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현재 완결상 체계는, 과거 시제 표지와 형태적 대립을 이루는 독립된 현재 완결상 표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었"의 세부적 의미 해석은 부사어 등의 어휘적 시상 표현에 의존하여 상보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과거 완결상 형태와 현재 완결상 형태간에도 형태적 중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어휘적 시상 정보에 의존하는 한국어 시상 체계의 특징을 보여준다.

---

12) 상 형태의 중화 후 다시 시제 형태의 중화가 적용되지는 못한다. 예컨대 과거 진행상 문장 (i)에서 단순 과거 시제 표지로 중화된 문장 (ii)는 여전히 '과거 진행'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다시 비과거 시제 표지로 중화한 문장 (iii)는 과거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 없다.

(i) 철수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ii) 철수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를 하*였*다
(iii) *철수가 도착했을 때 나는 공부를 *한*다.

4.2 진행상 형태와 그 의미
4.2.1 영, 한 진행상 형태의 기본적 의미

진행상은 어떤 사태가 시작 시점(beginning time)과 종료 시점(finishing time)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의 일정 시간 동안 계속됨을 의미한다. 이는 종료 시점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사건이나 변화도 없는 상태(state)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컨대 진행형 문장 (41)은 노래 부르는 사건(event)의 시작 시점 B가 말하는 시점 S(speaking time)보다 더 이전에 위치하고 종료 시점 F는 S보다 나중에 위치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는 사실' 즉 어떤 행위에 대한 상태적 표현인 단순 비과거 시제 문장 (42)의 의미와 대조되는 것이다.

(41) a. He *is singing* now.
그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b. -----|-------|--------|----->
B S(now) F

(42) a.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 *부른다*.
b. ----------|---------->
B? S(now) F?

따라서 동사가 진행상을 형성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용언의 의미적 특징에 달려 있다. 먼저 진행상은 [-Stative] 용언에만 가능하며, 이는 영어, 한국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예컨대 아래에서 보듯이 영, 한의 [+Stative, -Verb] 용언은 진행상을 형성할 수 없다.

(43) a. *Mary is *being* young.
b. *메리는 젊고 *있*다.

이는 본시 진행상이 시작 시점 B와 종료 시점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상태 개념은 종료 시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Stative] 용언은 본질적으로 진행상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설명된다.

영어와 한국어가 진행상에 관련하여 보여주는 공통점은 비지속 동사

(punctive verb)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의미 요소 [-Stative, -Durative]로 표시되는 비지속 동사는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이 거의 동시이므로(B=F), 원칙적으로 진행상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영어에서 "be + -ing"나 한국어의 "-고 있"이 비지속 동사와 함께 사용되면 이는 진행상이 아닌 다른 시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비지속 동사이며 사건의 완결성(Telic)을 내포하지 않아서 [-Durative, -Telic]으로 표기되는 순간동사(monentary verb)의 경우, "be + -ing"나 "-고 있"은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컨대 다음 문장 (44)의 "nod", "knock"나 (45)의 "끄덕이다", "두드리다"는 순간에 완성되는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이므로, 이들과 결합된 진행상 형태는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행위가 일정 시간 동안에 '반복'되었음을 의미한다.[13]

(44) a. Tom *was nodding* his head.
b. She *is knocking* the door.
(45) a. 톰은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b.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또한 비지속 동사 중 완결성(Telic) 의미를 갖기 때문에 [-Durative, +Telic]으로 표시되는 성취 동사(achievement verb)도 진행상을 표시하지 못한다. 예컨대 아래 문장 (46)의 진행상 형태들은 사건의 진행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순간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취급하여 표현한 '확장된 시제(expanded tense)'의 예이다(Hofmann, 1993, p. 146). 진행상 형태가 '확장된 시제'와 같은 문맥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영, 한 두 언어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46) a. The train *is arriving(is leaving)* now.
b. 기차가 지금 도착하*고(*떠나*고) 있*다.

13) 영어 순간 동사의 진행형이 항상 '반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아래 예들은 순간동사가 성취 동사와 마찬가지로 '확장된 시제'를 표현하는 경우이다.
(i) I *was jumping* over the fence when the shot rang out.
(ii) The firecracker *was exploding* when she glanced at him.

4.2.2 영, 한 진행상 형태의 비진행상 표현

영어와 한국어는 상태 동사의 경우 원천적으로 진행상이 허용되지 않는 공통의 의미적 제약을 갖고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즉 영어의 경우, 아래 (47b)와 같은 상태 동사의 "be + -ing"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다.

(47) a. He *knows* me well.
b. *He *is knowing* me well.

그러나 특별한 문맥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영어의 상태성 용언도 진행형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Hofmann, 1993, p. 140). 예컨대 다음 (48) 문장은 상태의 '한시성'이나 '현재성'을 표현한다.

(48) a. She *is being* stupid.
b. I *am loving* you.
c. I *am thinking* about the verb tenses.

영어의 습관적 진행형(habitual progressive)문장 (49a)도 위의 '한시성' 개념에 의해서 단순 비과거 시제 문장 (49b)의 의미와 구별된다(Quirk, 1985, p. 199).

(49) a. The professor *is typing* his own letters while his secretary is ill. (습관의 일시성)
b. The professor *types* his own letters.(습관의 영구성)

그러므로 영어의 "be + -ing"는 '진행'이라는 기본적인 상 의미 외에 '한시성'이라는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14]

한편 한국어의 경우는 '상태 동사 + -고 있'의 형태가 영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허용된다. 즉 "-고 있"은 다음 (50)에서 보듯이, 소위 상태성 용언으로 분류되는 심리 동사와 자주 결합되어 표현된다.[15]

---

14) 영어 진행형은 아래와 같이 계획될 수 있는 사건의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문맥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어는 비과거 시제 형태의 미래 표현은 가능하지만, 진행형 표지는 미래를 표현하지 못한다.
(i) She *is coming* tomorrow.
(ii) *그녀는 내일 오고 *있*다.

15) 한국어의 심리 동사는 화자의 능동성(행동성) 표현 가능성, 동태성 부사나 시간 변화

(50) a.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다.
b. 그는 동사 시제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c. 그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물론 이때의 "-고 있"은 사건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상태, 즉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진행상 형태로 보고 있는 선어말어미 "-고 있"이 원래는 '지속'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겠다. 즉 지속 보조 용언 "-고 있"은 지속동사(비순간성 동사)와 어울리면, 단일한 동작이 한동안 계속됨, 즉 '진행'을 나타내고, 비지속 동사(순간성 동사)와 어울리면, 동작이 '반복되어 지속됨'을 나타내며, 심리 동사와 어울리면,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의 "-고 있" 형태가 비지속 동사와 결합하여, '완결 상태상/결과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래 문장 (51)의 "뜨고 있다", "끄고 있다"는 "뜨다"나 "끄다"와 같은 순간적인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16]

(51) a. 그는 이미 눈을 감고 *있*다.
b. 그들은 전등을 켜고 *있*다.

또한 "-고 있"이 지속 동사와 어울려서 '완결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완결상태를 표현하는 부사적 표현의 동반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지속 동사의 "-고 있" 형태는 (52a)과 같이 진행상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52b)의 '반복'이나 (52c)의 '완결 상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즉 문장 (52c)에서 "듣다"의 의미 특질 [+Durative]는 부사어 "벌써"의 영향으로 중화되어 '완결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3) a. 나는 (지금) 음악을 듣고 *있*다(진행).
b. 나는 *가끔* 그런 소문을 듣고 *있*다(반복).
c. 나는 그 소문을 *벌써* 듣고 *있*다(완결 상태).

성 부사와 함께 쓰임, 기동상 해석의 가능성 등 동태 동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6) '완결 상태'는 완결상 표지 "-었"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i) 그는 *이미* 눈을 감*았*다.
(ii)그들은 전등을 *켰*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 있"의 '완결 상태' 의미는 진행상 표지 "-고 있"의 또 다른 상적 의미라기보다는 완결 상태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의 접속 형태 "-고(서) 있"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아래 문장 (54a)은 문장 (54b)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서정수, 1982, 1992, pp. 145-151).

(54) a. 그 학생이 모자를 *쓰고 있*다[17].
b. 그 학생이 모자를 *쓰고서 있*다.

이를 정리하면 한국어의 "-고 있"은 기본적으로 진행상을 나타내는 상 표지이며,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반복'이라는 세부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상태'를 표현하는 "-고 있"은 지속 보조 용언 "-고 있"과 관련하여, '완결 상태'를 나타내는 "-고 있"은 완결 상태 보조 용언 "-고 있"과 각각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고 있"의 시상 의미는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부사적 표현 및 문맥 상황에 의존하여 상보적으로 결정되어진다.

4.2.3 완료 진행 형태에 관한 영, 한 비교

영어에 있어서 동작 동사의 완료 진행형은 '지향시까지의 동작의 계속'을 표현함으로써, '지향시까지 계속되는 반복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완료형, 그리고 단순히 '지향시에 계속되고 있는 사건'을 표현하는 진행형과 구별되는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55a)는 노래 부르는 동작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55b)는 노래를 부르는 사건이 현재시까지 반복적으로 계속됨(즉 중간에 노래 부르는 동작이 중단되어짐)을 나타내고, (55c)는 현재시에 노래 부르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표현한다.

(55) a. He *has been singing* since twelve o'clock.
b. He *has sung* in this choir ever since he was a boy.
c. He *is singing* a song now.

17) 일부 자동사와 타동사 피동형의 완결 상태 보조 용언은 "-고 있"이 아닌 "-어 있"이다.
(i) 산이 높이 *솟아 있*다.
(ii) *산이 높이 *솟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는 영어의 완료 진행형에 대응하는 문법 형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영어 완료 진행형 문장 (55a)이 한국어에 있어서는 진행형 문장과 동일한 형태인 문장(56a)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한국어 문장 (56a-c)은 위 영어 문장 (55a-c)과 상응하는 문법 형태상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56) a. 그는 12시*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다.
b. 그는 소년 적*부터* 그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
c. 그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즉 영어 문장 (55a)에서 나타난 완료 진행형의 의미인 '지향시까지의 동작의 계속'이, 한국어에 있어서는 단순 진행상 형태 "-고 있"과 지향시까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어의 결합체인 문장 (56a)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한국어에 있어서 영어와 같은 '완결상 + 진행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한국어의 시상 표지 "-었"의 디폴트적 특성에 기인한다. 앞의 (27)에서 보았듯이 시상 표지 "-었"은 완결상의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부사적 표현이 있으면 완결상 해석을 받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시제 해석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사적 표현이 없는 아래 문장 (57a)에서의 "-었"은 과거 시제 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영어의 현재 완료 진행형 문장 (57b)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 진행'의 문장 (57c)에 대응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57) a.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b. He *has been singing* a song.
c. He *was singing* a song.

그리고 이러한 시상 체계를 반영한 한국어 문장의 구 구조 규칙도 영어의 구 구조 규칙 (58a)과는 다르게, '완료'와 '진행'이 상보적으로 선택되는 (58b)와 같이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a. AUX --> Tense (Modal) (Perfective) (Progressive)
b. AUX --> (Perfective) Tense (Modal)
or (Progressive) Tense (Modal)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영어와 한국어의 시상 체계를 시상 형태와 그 형태가 표현하는 의미와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이들 체계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 두 언어는 다음과 같은 시상 체계상의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두 언어의 시제 체계는 비과거 시제와 과거 시제의 2분 체계로 볼 수 있다. 즉 미래 시간 개념이 독자적인 시상 형태에 의해 표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두 언어의 상 체계는 완결상과 진행상의 2분 체계이며, 이 두 문법적 상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적 상들은 이미 존재하는 시상 형태를 빌어 표현된다. 셋째 각 언어의 시상 형태들은 기본적 시상 의미 외에 세부적, 문맥적 시상 의미도 표현하는데, 여기에서도 두 언어간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한편 영, 한 시상 체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먼저 영어는 명제의 시간 의미를 동사의 엄격한 형태적 대립에 의존하여 표현하며,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은 시상 형태와의 일치제약을 받는다. 또한 영어의 각 시상 형태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은 특정한 의미 요소를 중심으로 상호 대응하는 체계를 구성하며, 문맥적 의미는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명제의 시간적 의미를, 용언의 형태적 대립뿐만 아니라 부사적 표현이나 문맥적 정보 등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며, 시상 형태간에는 형태적 중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즉 한국어의 시상 형태는 시상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문법 표지 이외의 정보'(부사적 표현과 같은 어휘적 정보나 문맥적 정보)가 있을 때 중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형태가 비과거 시제 형태로, 과거 완료 형태가 현재 완료 형태로 중화될 수 있으며, 현재 진행상은 단순 비과거 시제 형태로, 과거 진행상은 단순 과거 시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 한 시상 체계상의 차이점은 주로 한국어 시상 표지가 표현하는 세부적, 문맥적 의미의 다양성과, 각 시상 표지가 나타내는 의미들 간의 비 대응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부분 한국어 시상 표지의 형태적 중화 현상에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상 표지의 형태적 중화 현상은 일본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시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이 동반되거나 시상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 문맥적 환경에서는, 일본어 비과거 시제형도, 과거나 미래의 의미를 비교적 자유롭

게 표현한다고 한다(서정수, 1976, pp. 112-118). 또한 자메이카 크레올과 같은 언어에서는, 시간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적 표현과 시제 형태가 상보적 분포를 하며, 나아가 마야어는 부사적 표현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표지 시제 형태가 사용되어야 하는 구문적 제약을 갖는 언어로 알려져 있다(Comrie, 1985, pp. 30-31).

그러므로 영, 한 두 언어가 보여주는 시상 체계상의 차이는, 시상 의미 표현을 주로 동사의 형태적 대립이라는 문법적 방법에 의존하는 언어와, 시상 의미를 문법적 방법 및 어휘적 방법에 상보적으로 의존하는 언어간의 유형적 차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강수언. (1999).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 연구*. 한신 문화사.

고영근. (1986). 국어의 시제와 동작상. *국어 생활, 6*.

김석득. (1981). 우리말의 시상, *애산 학보*. 연세대.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김성화. (1990). 현대 국어의 상 연구. 학위논문. 경북대.

김차균. (1985). {았}과 {었}의 의미와 상. *한글, 188*.

남기심. (1972). 현대 국어의 시제에 관한 문제. *국어국문학*.

남기심. (1978).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대한 연구*. 서울: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 (1991).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문용. (1999). *한국어의 발상, 영어의 발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창해. (1964). *한국어 구조론 III*. 연세대: 한국어학당.

서정수. (1976). 국어 시상 형태의 의미 분석 연구. *문법연구, 3*.

서정숙. (1992). *국어 문법의 연구(개정판) II*. 서울: 한국문화사.

서정수. (1996). *국어 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이익섭, 임홍빈. (1983). *국어 문법론*. 학연사.

이효상. (1995). 다각적 시각을 통한 국어의 시상체계 분석. *언어, 20,* 207-250.

허웅. (1969). *표준 문법*. 서울: 신구문화사.

홍종선. (1989). 시상과 시제: 국어의 미래시제 설정을 위하여. *연걸선생 화갑기념 국어국문학 논총*.

Byvee J. & O. Dahl. (1989). The creation of tense and aspect systems

in the language of the world. *Studies in language, 13*(1), 51-103.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fmann, Th. (1993). *Realms of Meaning*. London and New York: Longman.
Lee, E. (2001). Tense/aspect distinction in Korean predicative clause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3).* 569-586.
Palmer, H.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Sohn, H. (1975). Tense in Korean. In H. Sohn(ed). *The Korean language: its structure and social projection*.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Vendler, Z. (1967). Verbs and times. In Z. Vendler, *Linguistics in philosophy*. pp.97-121.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조경숙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호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2)940-5345
이메일: kschoks@hotmail.com

Received: 16 October, 2003
Revised: 5 November, 2003
Accepted: 20 November, 2003